

**서울지역본부**

설을 앞둔 지난 1월 20일,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희순) 8명은 경기 하남시에 소재한 「소망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도착하자마자 제법 익숙한 솜씨로 집안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주변정리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까지 발끔하게 정리했다.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후원금과 준비한 한라봉을 전달하였지만 너무 약속한 것 같아 팬시리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매섭던 추위가 잠시 풀렸던 1월 31일 이른 아침,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광영) 그린봉사단 5명은 구봉산 모여 입구부터 정상 그리고 하산 길까지 등산로 정화 활동에 나섰다. 그 동안의 활동 덕분인지 아닌 시민의식 발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진 등산로 모습에 활동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기분 좋은 걱정을 잠시 해 보았다. 그래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의 오래 방치된 오물들을 치우면서 아직은 우리 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서로 웃었다.

**전북지역본부**

• 설을 보내고 지난 1월 29일,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철중) 15명은 「홀트아동복지회 전주 영아원」의 기분 좋은 새해 첫 방문을 하였다. 지난번 방문 때 아이들이 샤워 후 드라이기가 없어 버리 말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었다가 이번 방문 때 드라이기를 준비해서 새해 선물로 전해주었다.

비록 작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한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번 방문을 기약하면서 돌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 지난해 12월부터 (주)축림은 냉장실 앞쪽 지옥 출고 데크 바닥 기초공사 및 옥상 위 건물 증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설 성수기 동안 예냉실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올해 6월 말경 건축물 설치를 완료하고 추식 이후에는 도매시장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경남지역본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유무상) 12명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동광육아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돼지고기 뿐 아니라 설날 아이들이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도 함께 준비했고 아이들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화장실 및 소강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소강당 청소 중)

**제주지역본부**

지난해 제주도 축산 조수입이 2007년 대비 8% 증가한 5,767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축산 조수입이 증가한 것은 양돈의 경우 환율인상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함과 동시에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맞물린 가격 상승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기당 전국 최대 규모의 소 사육두수 유지와 계란 및 육계의 가격상승, 제주도가 마뽕생산 공급기지로 경주마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축산 조수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